



## 역시 SBS! '월드컵 채널'의 명성 입증



### 명불허전! 차범근-차두리-배성재 트리오의 명품 중계

방송사의 중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SBS가 중계 내용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월드컵 중계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차범근-차두리 부자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는 타사 대비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명확하고 유쾌하며 감동이 살아있는 중계방송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있다. 차범근, 차두리 해설위원은 32개 참가국의 전력 분석 및 언론 반응까지 체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수준이 다른 해설로 시청자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차두리 해설위원은 독일-포르투갈 전과 독일-가나 전에서 처음 단독 해설에 나서 독일 활동 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해설로 '홀로서기'에 성공하였고, 유창한 독일어 실력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차두리 위원은 23일(화) 대한민국-알제리전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여 큰 공감을 얻었고, 차범근 위원은 대한민국-벨기에전을 앞둔 대표선수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응원을 잊지 않았다.

### SBS 월드컵 방송단, 전문성과 재치를 겸비한 진행으로 호응

뿐만 아니라, 박문성 해설위원과 장지현 해설위원도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설로 신뢰를 주고 있으며, <자기야-백년손님>의 '김서방' 김일중 아나운서와 조민호 캐스터, 정우영 캐스터도 활기차고 재치 있는 멘트로 월드컵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또한 장애인 아나운서도 수려한 외모와 능숙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 등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SBS월드컵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이 이어지며, 6월 13일(금) 방송된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인 브라질-크로아티아전에서 SBS가 2.3%(이하 닐슨 코리아, 전국)를 기록해 1.5%, 1.6%를 기록한 MBC와 KBS보다 높았고, 다음 포털 온라인 생중계에서도 주요 경기에서 SBS 접속자 수가 MBC와 KBS보다 많았다.



### 다양한 기술로 최상의 월드컵 방송을 제공

SBS월드컵 방송단은 매일 LTE생중계로 브라질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

으며, SBS 해설자와 캐스터 전원이 가상 축구팀인 'SBS 유나이티드 FC'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타임 슬라이스 촬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SBS월드컵 공식 홈페이지 N서비스, 23대의 카메라 앵글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멀티앵글 서비스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하프타임 이미지'와 '석자평' 등의 재치 있는 CG로 재미를 더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 한국전 영화관 중계, 거리응원 공개방송으로 국민과 함께

SBS는 지난 18일(수) 열린 한국과 러시아전을 비롯, 한국이 속한 H조의 조별리그를 멀티플렉스 극장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66개관에서 중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 스쿨>은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여 응원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 월드컵의 열기를 더하는 SBS의 특집 프로그램

#### <힐링캠프 in 브라질> '힐링전사' 7인의 브라질 입성기



SBS의 명품토크쇼 <힐링캠프>가 대한민국 태극전사를 응원하기 위해 브라질 현지에서 <힐링캠프 in 브라질>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MC 이경규, 김제동, 성유리와 함께 배우 김민중, 김수로, 강부자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전 국가대표 선수 이운재로 구성된 7인의 '힐링전사'는 대한민국-러시아 전과 대한민국-알제리전에서 현장 응원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차범근, 차두리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를 만나 월드컵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SNS원정대 일단 띄워> SNS로 교감하는 브라질 체험 여행



6월 9일(월)부터 방송한 SBS의 신개념 여행 프로그램 <SNS원정대 일단 띄워>는 오만석, 정진운, 박규리, 김민준, 서현진, 오상진이 2014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SNS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15박 17일의 일정을 체험하였다. 출연자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숙소인 호텔을 소개하고 이번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린 마라카낭 경기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무더운 여름을 SBS 새 드라마와 함께

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젊은이들의 치열한 이야기

• SBS 주말특별기획 <끝없는 사랑> •



6월 21일(토)부터 <엔젤아이즈> 후속으로 방송되고 있는 SBS의 주말특별 기획 <끝없는 사랑>(극본: 나연숙 연출: 이현직)은 격동의 70년대부터 80년대~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치열하게 살아낸 주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야망의 세월>, <에덴의 동쪽> 등 선거운 히트작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나연숙 작가와 <타짜>, <무사 백동수>에서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아 온 드라마본부 드라마1EP소속 이현직 부장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높이고 있는 <끝없는 사랑>은 황정음, 정경호, 류수영, 차인표, 정웅인 등 황금 캐스팅 라인업을 구축하여 2014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끝없는 사랑>은 1회부터 눈 돌릴 틈 없을 정도로 속도감 있는 전개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완성도 높은 연출, 새 캐릭터에 맞춰 완벽한 변신에 성공한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돈의 화신>, <비밀>에서 보여준 열연으로 호평 받은 황정음이 '여자 대부' 서인애역을 맡았고, 한 여자를 위한 애뜻한 순애보를 보여줄 순정남 한광철 역의 정경호, 냉철하고 잔혹한 야심이 한광훈 역의 류수영이 극의 중심에서 치열하고 격동적인 이야기만큼 뜨거운 연기열전을 펼쳤다. 또한 차기 대권의 꿈을 품고 있는 군인 천태웅 역의 차인표, 정치력과 사고

력을 겸비한 민혜린 역의 심혜진, 일명 선거의 귀재로 불리는 킹메이커 박영태 역의 정웅인 등 공인된 연기파 배우들이 젊은 연기자들과 함께 40부작에 걸친 대서사시를 이끌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끝없는 사랑>은 자칫 '남성들을 위한 드라마'로 보일 수 있는 시대극에 젊은이들의 진실한 사랑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감형 시대극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청자들도 1~2회 방송 후 "믿고 보는 황정음 때문에 본방 사수했는데, 황정음은 물론 정경호, 류수영 등 매력적인 캐릭터들 덕분에 1시간 내내 몰입해서 봤다", "시대극하면 괜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끝없는 사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할 것 같다" 등 열렬한 반응으로 첫 방송에 대한 관심과 만족을 표했다.

방송에 앞서 6월 16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된 <끝없는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본부 김영섭 EP는 "<끝없는 사랑>은 SBS에서 오랜만에 하는 시대물이다.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를 높였고, 이현직 PD는 "80년대~90년대 인물들의 사랑을 그리려고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다가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격동의 시대 안에서 꽃핀 진정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멜로 품은 시대극'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끝없는 사랑>은 매주 토~일 밤 9시 55분에 방송된다.





### 월화드라마 <유혹> 7월 14일(월) 첫 방송 시련과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사랑 찾기

월화 드라마 <유혹>(극본:한지훈, 연출: 박영수) 이 <닥터 이방인> 후속으로 7월 14일 첫 방송된다. <유혹>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멜로 드라마이다. 빛더미에 몰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차석훈 역할은 권상우가 맡았고, 권상우의 부인 나홍주 역에는 박하선, 차석훈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하는 재벌 후계자 유세영 역에는 최지우,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나홍주를 만난 후 흔들리고 차석훈과 대립하게 되는 강민우 역은 이정진이 맡았다. 지난 16일 일산제작센터에서 진행된 첫 대본 리딩 현장에는 권상우, 최지우, 이정진, 박하선, 윤아정 등 주요 출연진과 모든 제작진이 참석해 안부를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격적인 대본 리딩에 앞서 박영수 PD의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배우와 제작진 모두 각자 인사와 앞으로 드라마를 위해 열심히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7월 23일(수) 첫 방송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

7월 23일(수), <너희들은 포위됐다> 후속으로 <괜찮아, 사랑이야>가 방송된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2013년 큰 사랑을 받았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PD가 다시 만나는 작품으로, 벌써부터 시청자



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금)에 경기도 이천 세트장에서 있었던 고사현장에 조인성, 공효진, 성동일, 이광수, 도경수, 진경, 최승경, 최문경, 한정현, 이성경, 도상우

등 다수의 출연진과 노희경 작가, 김규태 PD를 비롯한 제작진, 김영섭 SBS 드라마EP를 포함한 여러 드라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성은 “드라마 불패의 신화 공효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효진은 “드라마 계의 드림팀과 꼭 함께 하고 싶었던 선후배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좋다. 조인성 씨 잘 부탁한다”라고 받았다. 성동일은 “나는 자신 없으면 발 안 담근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대박을 예상해본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SBS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 완벽한 외모와 청산유수의 언변을 가진 로맨틱한 추리소설작가 장재열(조인성 분)과 걸으로는 시크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정신과 의사 지혜수(공효진 분)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 새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 상류사회의 추악한 이면에 맞서는 여성의 당당한 홀로서기

아침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만의 당신>의 후속으로 7월부터 방송될 새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극본: 김지은 연출: 정효)이 6월 4일(수) SBS 일산제작센터에서 대본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최정윤, 강성민, 이종문, 김혜선, 유지인, 반효정, 임하룡, 임성언 등 화려한 캐스팅과 미스터리한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담동 스캔들>은 부모 없이 자란 여주인공이 재벌가 며느리로 청담동에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걸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각자의 야망을 숨기고 사는 상류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극적 긴장감을 높일 <청담동 스캔들>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SBS 아침드라마의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심장이 뛰다>, 일명 ‘모세의 기적 법’ 탄생시키다

7월 1일 종영을 앞둔 <심장이 뛰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국회를 움직였다. ‘모세의 기적’이란 소방차에 길 터주기 프로젝트로서, 올 초 <심장이 뛰다>에서 병원 이송이 늦어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하지절단 환자의 사연을 다룬 뒤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6월 16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두 달 여 미뤄진 이 자리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원내대표(이완구, 박영선의원), 법안을 공동발의한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영우 의원(새누리당)과 10여명의 여야의원이 함께하였고, 김소원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심장이 뛰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사보 1005호(6월 3일 발행)의 3면 ‘공공선 SDF에서 날개를 달다’ 기사에서 사진과 함께 소개된 연사의 이름 중 ‘김성배’는 ‘김상배’(MIT 교수)로 바로 잡습니다.



#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200회를 맞다

## 예능 한류를 이끌며 해외에서도 폭발적 인기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이 200회를 맞았다. 6월 15일 방송된 <런닝맨> 200회 특집은 차범근과 박지성이 함께 뛰는 '월드컵 특집-2014 아시안 드림컵 in 인도네시아편'으로 꾸며졌다. 이 날을 위해 차범근과 박지성의 극한 훈련을 이겨낸 멤버들은 그라운드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다. 특히 후반부 차범근과 박지성이 함께 뛰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감동의 도가니', '예능을 넘어선 감동'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유재석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서 200회를 맞게 된 멤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해왔는지 모르겠다. 많은 게스트와 시청자 덕분이다. 앞으로 몇 회가 될 지 모르겠지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2010년 7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런닝맨>은 '걸지 말고 뛰어라'를 모토로 멤버들이 끊임없이 뛰고 달리며 두뇌 플레이를 통해 미션을 해결하

는 프로그램으로, 초반의 시청률 부진을 딛고 수많은 팬 카페를 탄생시키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포맷은 예능 한류의 선두주자로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SBS 스태프가 참여하는 중국판 <런닝맨> 탄생의 목전에 두고 있다.



## 사내 소식

### 화재 시 대피 훈련 실시

화재 시 대피 훈련이 민방위의 날인 6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삼십 분 동안 본사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1975년 민방위 창설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규모 대피훈련으로, SBS는 행동 요령 숙지를 통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임직원과 상주인력들의 신변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하였다. 사원들은 사전에 공지되었던 화재 시 행동요령에 따라 화재 경종이 울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비상 방송에 따라 유도요원의 안내를 받고 비상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옥외로 탈출하였고, 대피 장소인 후문 주차장에 집결한 후 화재 초기진화에 꼭 필요한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을 교육 받고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였다. 이번 훈련은 일산제작센터 별관과 등촌동 공개홀, 프리즘타워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 <이달의 PD상> 시상식



한국PD연합회가 주는 170회 <이달의 PD상> 시상식이 6월 16일 오후 3시, 12층 라디오센터장실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169회 <이달의 PD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 이날 시상식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169회 <이달의 PD상> TV 시사·교양 부문

<그것이 알고 싶다 -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형제복지원의 진실> - 연출 : 배정훈

#### 169회 <이달의 PD상> 라디오 부문

<대단한 라디오 봄 특집 - 제주도의 봄 내리는 밤> - 연출 : 이선아

#### 170회 <이달의 PD상> TV 예능·드라마 부문

<심장이 똥다 - 제24화 모세의 기적 특집> - 연출 : 최삼호, 정준기

## 그룹 소식

### SBS MTV <더 쇼> 월드컵특집 방송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SBS MTV <더 쇼> 월드컵 특집이 1부, 2부로 나누어 방송된다.

6월 24일 저녁 6시 방송된 <더 쇼> 버블사커 & 뮤직콘서트 1부에는 비스트, 포미닛, 인피니트, 빅스, 걸스데이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7월 1일 저녁 6시 방송되는 <더 쇼> 버블사커 & 뮤직콘서트 2부에는 AOA가 부르는 '소원을 말해봐'(소녀시대), 백지영과 갓세븐 JB의 '내 귀에 캔디', <더 쇼> MC 티아라 지연과 박정욱이 부르는 '트리플 메이커' 등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 SBS Golf <SBS 골프 아카데미> 7월 개편, 김민아 레슨프로그램 첫 데뷔

SBS골프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인 <SBS 골프 아카데미>가 2014년 7월 1일 새 단장 한다. 김학서, 장활영 프로의 기본에 충실한 레슨으로 2014년 상반기기를 이어온 <SBS 골프 아카데미>는 7월 첫 주부터 새로운 진행자와 젊은 교습가들의 활기찬 레슨으로 찾아간다.

먼저 매주 화요일 밤 9시 20분에는 '야구 여신'에서 '골프 여신'으로 변신한 김민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평소 야구 못지않게 골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자랑해온 김민아는 <SBS 골프 아카데미>를 통해 안방 레슨 프로그램 진행자로 새롭게 도전한다. 김민아는 명쾌한 족집게 레슨의 대가 김흥기 프로와 PGA투어 해설위원 나상현 프로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또한 매주 수요일 밤 9시 20분에는 위트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레슨으로 시청자에게 사랑 받아온 김주형 프로와 여성 교습가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서아람 프로가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책임진다.





# 내 안의 나를 돌아보는 기회 - '힐링 걷기' 1주년을 맞다

지난 5월로 '힐링 걷기'가 1주년을 맞았다. '힐링 걷기'는 SBS 임직원과 가족들이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노사협력팀이 주관하는 월간 행사이다. 지난 1년간 혹한기 등을 제외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행사를 가져왔으며, 총인원 424명이 참석했다. 작년 5월 청태산 치유의 숲 걷기 행사에 21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산음휴양림 걷기 행사에 54명이 참석하는 등 날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다녀온 장소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5월 25일 황성 청태산 치유의 숲
- 2013년 6월 29일 괴산 양반길 및 산막이 옛길
- 2013년 7월 27일 포천 광릉수목원
- 2013년 8월 31일 안산 대부도
- 2013년 9월 28일 문경새재
- 2013년 10월 26일 울진 금강소나무길
- 2013년 11월 30일 춘천 봄내길
- 2014년 2월 22일 남한산성
- 2014년 4월 5일 서산 아라메길
- 2014년 5월 31일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 엄마와 살뜰한 데이트 시간 만들어 주는 '힐링 걷기'에 감사 - 많은 사우를 알게 되는 기쁨은 덤

사우 기고

##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주는 '힐링 걷기' 관계자와 SBS에 감사

지난해 봄, 엄마와 데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힐링 걷기'를 처음 신청했습니다. 충북 괴산에 '양반길'이라는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사람은 별로 없는 예쁜 곳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봄 냄새, 바람 냄새 맡으면서 걸어가는데, '살랑살랑'이란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로비에서 목레만 했던 다른 부서 선배님들과 "저 나무 이름은 뭐였지?", "저 꽃 색깔은 특이하다..." 하면서 회사 안에서는 잘 할 수 없는 얘기도 도란도란 편하게 나누고, 산 속에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도(반주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과 어딜 가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 년이 지난 지금은 지나가다 '힐링 걷기' 멤버를 만나면 제가 먼저 "이번 달에도 가족과 함께 오세요?"라고 안부를 묻곤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엄마와 주말 일정을 상의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엄마랑 관광버스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문경새재나 울진 금강 소나무 숲 같은 먼 곳에 수학여행가는 여고생처럼 놀러가 볼까요? 시집가기 전에(^^) 엄마와 더 많이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는데 '힐링 걷기' 덕분에 벌써 일 년 넘게(ㅠ.ㅠ) 효도하고 있습니다.

숲을, 만지고 맛보면서 이해하게 해주는 해설가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덕분에 이제야 콩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따먹는 뽕나무 열매 맛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네요. '힐링 걷기' 다녀 온 날에는 꿈도 없이 잠이 살랑살랑 잘 옵니다. 저는 선배님들과 푹 푹한 얘기도 하고,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는 '힐링 걷기'가 참 좋습니다. 시집가도 계속 가야겠습니다.^^

- 제작본부 아나운서 팀 이윤아 올림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딸과 함께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복 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돼있는 오염되지 않은 계곡과 다양한 동, 식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아름다운 숲 속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마음으로 걷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를 얻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제 딸이 이런 회사에서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든직한 두 담당자 분(노사협력팀 강선우 차장, 김정목 사원)의 깊은 배려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한 분은 혹시 뱀이라도 나올까 봐 앞장서 가시고 또 한 분은 일행 중 뒤처지는 사람을 받쳐주는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앞뒤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는 매월 '힐링 걷기'에 참가하고 싶게 합니다. SBS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소통을 위한 '힐링 걷기'를 매달 진행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SBS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SBS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윤아 엄마 올림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고,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법적 이슈, 이럴 땐 어떻게? ⑥

제호의 저작물성

저작물의 제호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는가? 이는 '제호'가 그 작품과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의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정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 제작사 또는 방송사는 그 인기에 힘입어 후속편을 제작, 방영하게 된다. 전작과 줄거리, 전개과정, 갈등 구조 등에 유사성이 없고 단지 전작의 제호만을 사용했을 경우 즉, 전혀 다른 내용의 극본에 따라 드라마를 제작하여 인기가 있었던 전작의 제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작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MBC 드라마 <궁>이 인기를 얻은 후 그 후속편을 전편의 제작사와 다른 제작사가 제작, 방송하면서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뉴스 기사의 표제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 또는 제호는 사상이나 감정의 충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적 견해이자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무용극 제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연극 제목 <폼바>, 책 제목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영화 <애마부인>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하여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MBC 드라마 <궁S> 제호에 관한 분쟁에서 서울서부지 법은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궁>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주지저명한 영업표지로 보아 위 제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궁S>라는 제호로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 14. 자 2006카합2151결정)

또한 뉴스 기사의 표제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아니지만 일본 항소심 법원은 "뉴스 보도에 있어서 기사 표제라는 이유로 모두가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창작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결국은 각 기사 표제의 표현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개별 뉴스 기사의 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내 마음의 일기장》

SBS 내 마음의 크레파스 제작팀 저 | 예문사

SBS 리얼 성장다큐 『내 마음의 크레파스』 주인공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교육전문가가 조언하는, 현명한 부모를 위한 십대 자녀 교육 지침서

《내 아이의 일기장》은 SBS 성장 다큐멘터리 『내 마음의 크레파스』가 이 시대 감성 부모에게 전하는 자녀 교육 레시피이다. 부모에게는 미처 몰랐던 자녀의 생각과 교육 방향을, 아이에게는 또래 아이들과의 공감대와 꿈을 담은 그릇을 제공해준다. 주로 7~15세 어린이와 청소년 주인공이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진실

한 생활상을 마치 내 아이의 일기장을 읽는 것처럼 감성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준다. 동시에 아이들의 실제 사례 하나하나에 맞춰 부모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적 지침을 교육전문가가 알뜰하게 가르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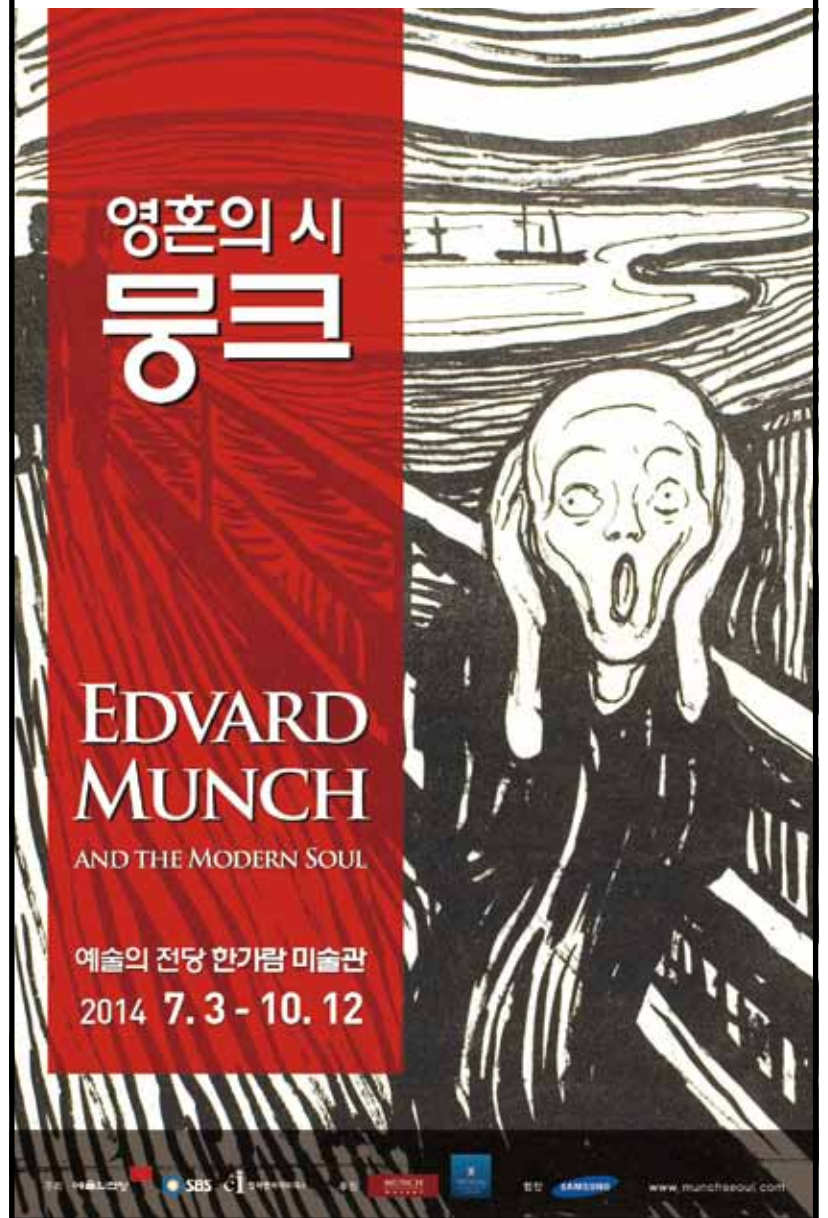
NEW BOOK

공연 · 전시

“에드바르트 뭉크 -영혼의 시” 전시회

기간 : 7월 3일(목)~10월 12일(일)  
장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에드바르트 뭉크-영혼의 시” 전시회가 7월 3일부터 10월 12일 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열린다. 표현주의의 창시자 뭉크는 “절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 불안과 고독 등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가이다. 그의 조국인 노르웨이에서는 뭉크의 초상을 1000크로네 화폐에 그려 넣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뭉크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여 2013년부터 노르웨이 전역과 영국 런던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뭉크를 기념하는 각종 전시와 행사의 일환이다. 이번 전시에는 ‘절규’ 석판화를 비롯해 유화, 드로잉, 판화, 사진, 영상 등 100여 점의 오리지널 작품이 전시된다.



| 경조사 소식 |

- ❖ 축하합니다 제작본부 교양국 배정훈 PD 결혼(6월 22일)
- 제작본부 드라마국 조영민 PD 결혼(6월 29일)